

## 死에 對한 研究(四)

韓稚振

### 四. 死의 原因

死의 原因이란 것은 實로 生의 原因처럼 多種多□일 것이다. 勿論 死의 種類도 그 原因에 依하여 □할 것도 事實이겠지만은 一原因이 여러 種類의 死를 作成할 수 잇겠다. 故로 死에 原因을 무엇이라고 分明할 수 업스나 大概 몇가지로 死의 種類만을 記錄코져 한다.

一. 急死. 이것은 갑작 무슨 失手을 해서 죽는 것과 或은 病□이 入하여 남 모르게 毒을 벗어나서 갑자기 死亡을 □출케 하는 것 等を 名□함이다. 故로 急死를 定義하자면 『남모르게 갑자기 死亡하는 것이라』 할 것이다.

急死의 가장 쉬운 原因들은 心□의 傷害動□의 斷切□春□系統의 損傷呼□器消化器 其他 器□의 故障일 것이다. 또 以外 頭□火傷流血갓흔 것도 突然이 死亡을 産한다.

### 二. 心理的 原因

사람은 너무 근심 걱정을 만히 하는 가운데서 □退하여 死亡하기 쉬운 것이다. 空然한 일에 恐□하고 心亂해 하는 것은 不利하다. 조치 못한 感情을 가지고 凡事를 當함에 밤낮 不平한 狀態에 잇다하면 그는 自己의 무덤을 스스로 파며 잇는 것이 될 것이다. 이와 反對로 快活하고 平靜한 마음을 가진 즉 心身이 健強하여 病□를 잘 抵抗할 수 잇다. 心理的 努力을 잘 利用함에 依하여 生死의 延長을 決定할 수 잇는 것이다.